

저코스트국의 인건비 및

환경 대책 비용 상승 등으로 섬유 생산 코스트 상승

일본 국내에서 생산 코스트가 오르고 있으며, 섬유 제품 수입 가격도 앞으로 올려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섬유 제품의 생산을 OEM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는 인건비가 크게 올라, 채산이 안 맞게 된 섬유 공장이 늘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각 공장 경영자에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을 종신 고용제 비슷한 대우를 해주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뿐 아니라 환경과 생산의 조화 대책 비용(調和對策費用)을 염색·날염 공장에게 부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각성(各省)의 행정 당국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위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 폐쇄를 명령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공장의 환경 코스트는, 예상보다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의 상승, 환경 대책 비용의 증가라는 두 가지의 생산 코스트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일본에서도 판매되는 수입 섬유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공통의 섬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경쟁이 심하게 될 것이다.

◎ 중국 섬유 제품은 언제라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환경과 생산의 조화 대책 비용이 올라, 일본 국내 섬유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제 섬유 제품의 판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일본의 각 가정의 가계(家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방파제가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중국에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코스트가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 관계자는 어느 정도로 코스트가 상승할지를 숫자로 표시하여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장래를 내다본 한 예를 소개하면, 중국 연해부의 광둥성에서는, 개인 소득을 2012년까지는 2007년의 배로 올리는 계획을 내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도부터 3년간, 최저 임금을 매년 10% 올리는 방침도 내보이고 있다. 인건비의 상승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싼 중국의 오지(奧地)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수송의 기반 구조(infrastructure)가 좋지 않아서 이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코스트가 상승할 요인으로 중국의 염색 공장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은 환경 대책 비용의 증가이다. 장쑤성(江蘇省) 당국(當局)은 2008년부터 타이후 유역(太湖 流域)에서의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권을 유료화하였으며, 따라서 공장의 생산 코스트가 오르고 있다.

화학 공장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化學的 酸素 要求量 : chemical oxygen demand = COD) 1kg에 10.5 위안이고, 염색 공장은 5.2 위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므로, 소규모 염색 공장 중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

2009년부터는 더욱이 암모니아 질소(ammonia 窒素)나 총린(總磷)의 배출권 유료화 모델 사업(排出權 有料化 model 事業)을 시작함으로써 공장 측의 환경 대책 코스트는 더욱 오르며 소규모 공장에서는 폐업이 많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베이징(北京) 정부는 클리너 프로덕션 정책(Cleaner Production 政策)을 추진하여 대기 오염 방지 등을 실제로 필요한 각 사항을 실시하는 데에 따라 중국의 염색 공장은 환경 대책 비용의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중국 인민 위안이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20% 이상 오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중국 섬유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다.

◎ 일본계 기업은 생산 코스트가 낮은 다른 나라로 생산을 위탁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내다 보고 유니크로는 중국에서의 섬유 제품 생산 비율을 줄여, 생산 위탁 상태(生産 委託 状態)를 코스트가 낮은 아시아 여러 나라로 분산시켰다. 이외에 여러 일본 상사도 섬유 제품 생산을 코스트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섬유 제품의 수입 인플레이션(수입 inflation)을 어느 정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문제점은 섬유 제품의 생산 위탁 상대의 내부 사정이다. 저(低) 코스트를 기대할만 하다고 하던 베트남이 지나치게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일으키고 있어, 섬유 제품의 생산 위탁 대상은 앞으로는 적재적소를 찾아 다른 데로도 가게 될 것이다.

중국에 있는 다이도 리미티드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중국에 섬유 제품의 검품 거점(檢品 據點)과 점포별로 분류하여 집중 처리 거점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2008년에는 안후이성(安徽省)의 직영 공장 근처에 검품 센터를 차렸고, 2009년에는 상하이 근처에 검품 및 분류 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는 각 공장에서 일본 국내의 센터로 보내고 있던 것을 중국에서 하나로 묶어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단납기로 하면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안후이성의 검품 센터는 직영 공장 및 주변의 중국 협력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의류(重衣類), 니트 등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상하

이 근교의 검품, 분류 센터가 생기면, 품질 관리의 향상뿐만 아니라, 납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코스트가 오르는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외에 섬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더욱 높아질 것 같다.

◎ 신흥국의 많아진 섬유 기업 - 섬유 제품 불량 해결법 습득이 다음 작전

그런 관점에서 여러 신흥국들의 섬유 공업 동향에 대한 뉴스를 수집해 보면, 세계의 저코스트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공통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여 주문을 받고 있다. 그것은 섬유 제품의 트러블(trouble) 해결 방법과 섬유 제품의 품질 개선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여러 나라의 섬유 공장이나 이들 공장에 생산을 위탁하는 기업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많은 신흥국에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들 공장 중에서 앞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경쟁 조건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버 오르가논(Fiber Organon)지(誌)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섬유 생산량은 세계 인구 60억에 대하여 7,552만 톤에 달하며, 구매력을 기준으로 고찰할 때 세계 섬유 생산량은 물리적 한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통계는 시사하고 있다.

그 생산량의 과반수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섬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품질 향상 대책을 효과가 있는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을 반영해서인지 염직 경제 신문(染織 經濟 新聞)의 웹

(web)인 텍스타일 인포(Textile info)에서 발신하고 있는 섬유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대책 콘텐츠(contents : 내용)에 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콘텐츠를 받으려는 액세스(access : 접근·입수)가 많아지고 있다.♣